

“정치적 경험의 다양성”에 관하여*

On “Varieties of Political Experience”

박상섭_서울대학교

Park, Sang Sop_Seoul National University

I.

본 필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쫓지 교수의 저작은 1934년생인 쫓지 교수가 8순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여러 곳에 기고했던 글 가운데에서 정치사회학,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권력에 관한 글들을 모아 펴낸 책이다. 쫓지 교수는 우리 학계에서 비교적 덜 소개되어 있는 까닭에 우선은 그의 약력에 관해 약간의 소개를 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첩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엄밀한 의미의 서평이라기보다는 그의 학문적 작업 전반 속에서 이 책이 갖는 의미를 찾는 작업이 될 것이다.

쫓지 교수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학부 과정에서는 법학을 전공하였다(이탈리아 파도바 대학). 그러나 당시 법과 대학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문제만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흥미를 잃고 대신 사회학 및 정치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정치사회학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고 그 자신은 밝힌 바 있다. 정치학과 사회학에 대한 관심은 당시 이탈리아 사회에 대한 현실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그의 실천적 관심은 진보적 가톨릭 청년운동 조직을 통해 표출되었는데 이 때 같이 활동한 가까운 동료에는 뒤에 급진주의 학자로 널리 알려지고 실제 테러 활동에 가담하여 투옥되었다가 가석방 기간 중 프랑스

* Book Review on Gianfranco Poggi, *Varieties of Political Experience: Power Phenomenon in Modern Society*(Colchester: ECPR Press, 2014).

로 망명한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가 있다.

그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할 때 가졌던 가장 큰 관심사는 종교사회학 분야였는데 이러한 관심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의 비판적 시각과 동시에 가톨릭 사회운동에 대한 그의 참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뒤에 종교를 통한 사회운동에 회의를 느끼고 그는 이 조직에서 탈퇴했지만 종교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의 사회학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미 국무성 장학금을 받아 1년 예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에 유학할 기회를 얻었는데 예정과 달리 이곳에서 박사 과정까지 수학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에서 그가 다룬 주제는 그가 한 때 몸담았던 이탈리아 가톨릭 평신도 현실 참여 그룹인 “Catholic Action”(Azione Cattolica)을 중심으로 본 가톨릭 교회와 현실참여를 위한 종교조직 사이의 관계였다. 종교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은 뒤에 그가 저술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문제에 대한 그의 코멘타리인 *Calvinism and the Capitalist Spiri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4)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는 학위를 마친 후 귀국하여 피렌체 대학에서 잠시 강사로서 활동하던 중 시에나(Siena)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알게 된 영국의 한 젊은 사회학자를 통해 당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사회학과를 창립한다는 소식에 접한 후 이 대학의 교수직에 응모하였다. 에딘버러 대학의 사회학과를 창설한 중심인물인 톰 번즈(Tom Burns)와의 장시간에 걸친 면접 끝에 이 대학 사회학과에 채용된 풋지 교수는 동 학과의 창립 연도인 1964년부터 25년간을 이곳에서 사회학자로서 활동하였다. 1989년부터 1995까지 그는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의 사회학과에서 석좌교수(W. R. Kenan Professor)로 재직한 후 1996년에는 이탈리아 피에졸레(Fiesole=피렌체 교외) 소재의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¹⁾에서 2002년까지 재직하였다. 그 후로는 이탈리아의 트렌토 대학(University of Trento)으로 옮겼다가 2008년에 공식으로 은퇴하였다.

1) 이 학교는 유럽 공동체(European Union)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 간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를 위해 설립한 석박사 과정만을 두고 있는 국제대학으로 1976년에 개교하였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 및 대학원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분야는 사회학의 대표적인 이론가들의 고전적 저술이었는데 그 결과의 일부는 1971년에 출판한 *Images of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2)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책에서는 토크빌, 마르크스 및 듀르켐 등 3인의 고전 사회학자들의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 쫓지 교수 자신의 술회에 따르면 원래는 막스 베버, 게오르크 짐멜 및 빌프레도 파레토 등을 포함한 6인의 이론을 함께 다루고자 했지만 작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3인으로 국한했다고 한다. 그는 짐멜과 베버에 관해서는 뒤에 작은 안내 책을 저술하여 이때 못 한 작업을 보완했다.²⁾

그는 후일 자신은 원래 사회학자로서 사회 현장에서의 경험적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작업에 더 큰 가치를 두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 했고 대신 서재에서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논의에만 치중하였다는 점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표시한 적이 있다. 어쨌든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는 여러 편의 논문과 서평을 발표하였는데 그가 논평의 대상으로 삼은 학자들은 대부분 당시 활동 중이던 대표적 정치사회학들이었다. 여기에는 라인하르트 벤딕스, 알빈 굴드너, 다니엘 벨, 에드워드 쉴즈, 배링턴 무어 등이 포함되었다. 정치사회학에 관련된 대표적인 학자들을 다루는 논문과 서평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다루어진 주제는 바로 “국가”와 “권력”의 문제였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동료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와 얘기를 나누던 중 최근 사회학의 작업 중 국가를 다룬 글들이 별로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 당시까지 그가 수년간 가르치던 정치사회학 강의에서 국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던 점이 상기되었다고 그는 술회하였다. 그래서 그는 기든스가 언급한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는 이곳에서 서양 정치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유형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나온 작업이 1978년에 출간된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Stanford University Press)였다.³⁾

2) *Weber: A Short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2006); *Money and the Modern Mind: Georg Simmel's Philosophy of Mone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3) 이 책은 본 필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근대국가의 역사적 발전』(민음사, 1995).

II.

당시 국가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주로 마르크주의 국가이론을 통해 부활되고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류 정치학 이론으로 발전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적 관점과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행태주의 이론에서는 국가의 논의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는데 (이점은 바로 쫓지의 상기 책 속에서 명백히 언급되고 있다.) 이 국가 문제가 부활된 것은 1960년대 급진주의 학생 운동의 와중에서였다.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일단의 급진적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국가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하자고 나섰는데 정작 국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실천 노선의 설정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운동의 와중에서 이들 급진 운동가들은 이론적인 지침을 얻기 위해 마르크스 고전이론을 검토해보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원론적 논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다 당시 서구의 상황에 맞는 보다 세련된 이론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랄프 밀리반드(Ralph Miliband), 프랑스 (정확히는 그리스)의 풀란차스(Nicos Poulantzas) 등의 저술 및 이들 사이의 격렬한 논쟁을 통해 국가에 관한 다양한 사회학적 논의가 주요 대학의 사회학과나 정치학과에서 소개 및 토론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근대국가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막스 베버나 또는 게오르크 엘리네크 같은 독일 학자들의 글에서는 중심을 이루는 주제였다. 그러나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정치학 또는 사회학에서는 거의 잊혀가던 주제였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도 국가의 문제는 국가란 한낱 하부구조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신조 때문에 소홀히 취급되었다. 그러나 상부구조도 단순히 반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하부구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이론들에서 새삼 강조되면서 서양근대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성격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초기 작업의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페리 앤더슨의 *The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New Left Books, 1974)를

들 수 있다.

풋지 교수의 1978년 저서는 앤더슨의 책과 달리 서양 주요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다루지는 않고 대신 봉건국가에서 근대 국민국가로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유형화하여 이해하는 비교역사사회학의 작업의 성격을 지닌다. 이 작업에서 그가 기대고 있는 이론적 전통은 막스 베버의 정치사회학인데 이러한 베버적 시각에서 국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작업으로는 앞서 말한 앤서니 기든스가 1984년에 출간한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풋지나 기든스의 작업에서 다루어진 약 5세기의 시간 폭을 훨씬 더 넓혀 마이클 맨(Michael Mann) 교수는 근대/현대 국가의 이해를 위해 검토 대상의 시간 폭을 고대까지 끌고 올라간 야심적인 작업인 *The Sources of Social Power*의 첫 권을 1986년에 출간하였다(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년에 출간된 네 번째 권으로 그의 정치/역사사회학의 대작이 마감되었다.

풋지 교수가 1978년의 책에서 시도한 것은 봉건국가와의 유형적 대비를 통해 근대국가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나 국가 공권력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추상되었는데 이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는 1990년과 2001년에 각기 아래와 같은 두 개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The State: Its Nature, Development and Prospect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Forms of Power* (Polity, 2001).

Ⅲ.

풋지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외에도 몇 권의 추가 저서를 발간하는 한편 서평 또는 백과사전예의 기고 등을 통해 자신의 주 전공이라 할 수 있는 정치권력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이 글에서 본 필자가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Varieties of Political Experience*는 자신의 은퇴를 계기로 그러한 논의들을 묶어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아 책의 첫 장(章)에는 책과 동일한 제명의 글이 실려 있는데 그의 정치사회학의 기본 구성을 엿볼 수 있는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정치를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한다. 그는, 정치를 시민들 간의 수평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다루었던 고전 그리스의 경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지만 그가 갖는 기본적인 문제는 강제력(coercion)의 개념이다. 이를 위해 그는 마키아벨리와 홉스를 언급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지만 그의 논의에서 중심을 이루는 이론가는 막스 베버와 칼 슈미트(Carl Schmitt)이다. 단순히 강제력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논의를 위해 강제력과 관련하여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강제력인가? 무엇에 관해 얼마만큼의 강제력이 사용되는지, 또 강제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에 관해 다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강제력을 국가 또는 정치 문제의 중심 개념으로 삼으면서 쫄지 교수의 관심은 현대의 국민 국가와 정치권력의 일상화된 표출방식인 관료제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가 크게 딛고 있는 이론적 자원으로서는 독일의 정치사회학자인 하인리히 포피츠(Heinrich Popitz, 1925-2002)의 “권력의 제도화” 이론이다. 포피츠 교수의 이 논지에 대해서는 첫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만 쫄지 교수는 포피츠의 논의 전체를 영어권에서 소개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章)은 포피츠 교수의 주저인 『권력의 현상』(Phänomene der Macht, 2nd ed., Tübingen, 1992)의 1장 (“권력의 개념”의 영역이다.)⁴⁾

“권력 개념의 윤곽과 표출”이라는 제명의 2장에서는 막스 베버와 하인리히 포피츠의 권력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심은 강제력 또는 폭력이 어떻게 실제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으로 바뀌는가 하는 문제이다. 쫄지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권력의 탈인격화(depersionalization), 형식

4) 쫄지 교수 자신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그의 권력이론은 상당 부분 포피츠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한다. 포피츠의 논의는 독일의 정치사회학 또는 지배사회학의 전통 위에 서있다. 쫄지 교수는 본 필자와의 개인적 문통을 통해서 포피츠의 책 전체를 번역하고자 했으나 출판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출판사가 없어서 제1장만을 번역해서 이 책에 소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책을 읽게되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만 이 책에 실린 논문 전체에서 포피츠의 논의가 언급되고 있다.

화(formalization), 및 권력과 사회적 활동과의 통합(integration)으로 세분화되는 포퍼츠의 권력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개념이다.

제3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사회적 권력(social power)의 구성 요소에 관련된 유럽 사회학계의 논쟁과 관련된 글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네오 베버리안에 포함되는 영국 출신의 사회학자 마이클 맨(Michael Mann) 교수는 1986년에 그의大作인 *The Sources of Social Power* 1권을 출간한 후 2012년에 마지막 권인 4권을 발간하여 완결하였다. 그가 다루고 있는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작업의 시간적 범위가 뿐 아니라 그가 동원하고 있는 다양한 저작, 이론적 야심 등의 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탄을 받은 바 있다.⁵⁾ 맨 교수는 사회적 권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 세 가지, 즉 정치권력, 경제권력 및 이데올로기적 권력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는 부분이다. 맨 교수는 독특하게 군사 권력을 다른 세 개와 대등한 독자적인 권력 원천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반론을 제시한 바 있는데 쏫지 교수의 3장의 논문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맨과는 다른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글이다.⁶⁾

4장에서 7장의 논문들도 근대 국가의 20세기적 발전/변용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몇 가지 고전적 문제들이 다루어진다. 4장에서는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변천, 5장에서는 유럽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유럽의 사법 전통이 미친 영향의 문제⁷⁾, 6장에서는 시민권 개념의 변화 과정과 미래 전망 그리고 7장에서

5) 맨 교수의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지만 그 작업이 미친 영향력이 적지 않아 그 책이 안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련된 학계의 평가를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An Anatomy of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eds., John A. Hall and Ralph Schroeder 이다. 이 책에 쏫지 교수도 기고하고 있는데 그의 기고문은 바로 우리가 논의하는 쏫지 교수 저서의 3장을 이룬다.

6) 이 문제에 대해 쏫지 교수는 2001년의 책 10장에서 이미 상세히 언급한 바 있다.

7)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거의 사라져있던 국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킨 것이 페리 앤더슨의 작업이었다면 자유주의 전통에서 그와 같은 “반상”의 의미를 갖는 작업으로서 는 Charles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쏫지 교수는 이 책의 공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만 사법제도의 역할이 빠진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이 장(章)이 이에 대한 보완적인 작업을 의도하는 것임을 말한다.

는 (자유주의적) 공공영역 (또는 공론장)의 성장과 그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대응에 관한 문제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어진다. 이들 문제들은 대부분 그의 1978년의 책이나 1990년의 책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던 주제들로 그 당시 채 언급되지 못한 측면들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 글들이다.

8장에서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원래는 1998년에 쓰인 글이었다. 쫓지 교수는 이 주제를 2001년에 출판된 *Forms of Power*의 7-9장에서 더 상세히 다루었다. 쫓지 교수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특히 염두에 두고 있던 점은 단순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소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품고 있는 반자유주의적 또는 반민주주의적 함의에 대한 실천적/비판적 문제제기이다. 쫓지 교수는 다분히 베버나 포피츠 같은 독일 현실주의적 이론의 전통을 기반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의 실천적 관심은 유럽의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바로 이 8장의 글에서 잘 엿보인다.

국가의 세속화 또는 탈종교화를 다루는 9장에서는 시장 역할의 확대 과정과 국가 세속화 과정 사이에서 발견되는 병행 현상이 논의된다. 따라서 이 논의는 8장에서 다루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연결시켜 읽을 때 그 함의가 제대로 전달된다. 쫓지 교수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 문제를 단순히 이 양자 관계라는 측면이 아니라 국가, 종교 및 시장의 3자관계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사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된 논문들은 사실상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다른 영역들, 즉 법률, 종교, 경제, 공공영역 등과 국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10장에서 쫓지 교수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근대국가 외부의 상황과 개별 국가와의 관계이다. 즉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확정된 근대 국제체제의 특징적 양상이 개별 국가의 행동과 여러 가지 구조적 양상들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10장의 주제가 된다.

쫓지 교수의 마지막 논문은 10장까지의 글들과는 약간 다른 성질의 것이다. 10장까지의 글들이 일관되게 국가 사회학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 11장의 글은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Politik als Beruf*)라는 유명한 장언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확정된 배경에 관한 것이다. 포피츠에 못지않게 쫓

지 교수가 크게 기대고 있는 이론적 자원의 하나가 막스 베버였다. 그러한 점과 관련하여 쫓지 교수는 막스 베버에 이론과 사상에 관한 짧은 책도 저술출판했고 또한 자본주의 정신과 기독교에 관한 책도 저술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베버의 정치론과 학문론 (『직업으로서의 학문』)에 관한 본격적인 안내서를 계획한 바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작업계획은 포기되었다. 특히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학문론이 수반하는 철학적, 방법론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큰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학문론에 관한 작업은 아예 포기되고 대신 정치론이 나오게 된 배경만을 따로 저술했다가 이번 기념논문집에 수록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자신의 관심영역에 대한 즐기찬 탐구자세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다.

부록에 실린 글은 앞서 언급했듯이 포피츠의 『권력의 현상』이라는 책의 첫 장(章)의 영문 번역인데 권력의 개념이 대단히 명료하게 제시된 글이라는 점에서 권력의 사회학적 논의에 관심 있는 학도들에게는 필독의 글로 여겨진다.

IV.

이상에서 쫓지 교수의 은퇴 기념논문집이라 할 *Varieties of Political Experience*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기왕에 여러 곳에 발표된 논문들을 모은 책이지만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업이다. 이 주제들은 근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내의 다른 생활 영역, 즉 경제, 종교, 법률, 공론장 등과의 관계를 추적하는 작업들이다. 비록 긴 시간 동안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발표된 글들이기는 하지만 쫓지 교수가 정치사회학 또는 국가사회학자로서 일관되게 추적해왔던 연구 작업의 성격이 대단히 뚜렷이 드러나고 있어 대단히 흥미롭다.

본 필자가 쫓지 교수의 글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의 1978년 책을 번역하고 그 이후로 최근까지 계속해서 문통을 하였던 것은 그의 국가사회학적 관심이 본 필자의 학문적 관심과 완전히는 아니라도 8-90퍼센트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막스 베버의 지배사회학에 대한 본필자의 지속적인 관심 때문에 쫓지 교수의 글에 대해서는 처음 접할 때부터 대단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쫓지 교수는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이론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큰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실천적 관심이 그의 작업의 어젠다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순을 갓 넘긴 현재 그는 현직에서는 물러나 있지만 아직도 그의 학문적 열정은 식지 않고 있어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 유럽 그리고 호주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 후배 학자들의 학문적 성장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관심을 쏟고 있어 전형적인 유럽식 인문학 지식인-교수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필자는 위에서 밝힌 계기를 통해 개인적으로 쫓지 교수의 학문적 작업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몇 가지 크게 감탄한 바 있다. 많은 유럽 출신의 학자들이 그렇듯이 뛰어난 어학 능력과 고전 문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그 하나이고 자신이 선택한 연구 주제에 대한 전 생애에 걸친 끈질긴 탐구 작업 태도가 또 다른 하나이다.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끈질긴 이론적 작업의 추진이 현실문제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동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논의가 항상 현실성을 띠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책에서는 그러한 면모의 지극히 부분적인 점만 드러나고 있지만 여하튼 우리 후학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자세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점을 부각시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다.